

2025 03

제242호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대덕구 홈페이지 E-BOOK으로 연결됩니다.

대덕 라이프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감개무량

대덕구민의 염원 조차장복합개발 확정

50년 숙원사업 부지 48만m² 1조4천억원 투입

대덕 라이프

내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대덕라이프 제호 서체 : 글고운 캘리그래피 박진희 作

- 02 좋은글, 좋은 시
- 03 구정소식
- 05 2025 대덕물빛축제
- 06 대덕구 맛집을 찾아서
- 07 [대덕구기관장협의회] 양수조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 08 열린의정
- 10 [인물인터뷰] 김종은 비래동 박수아 헤어카페 원장
- 11 대덕톡톡

“안전이 최우선” 대전 대덕구, 환경관리요원 ‘안전사고 제로’ 다짐대회 개최

‘업무 효율성 향상’ 2025년 상반기 기초생활보장 교육

‘소각산불 예방’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지원

봄철 산불조심기간 전 선제 추진... 노끈 등 영농폐기물은 제외 오는 5월 15일까지 차량 진입 가능 장소에 부산물 정리 후 수거 신청

‘전통 한가득’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 행사 개최

부수골 목신제·목상동 들말 달맞이 등 8개 동 10곳서 전통민속행사 개최

“이달의 책을 소개합니다” 석봉도서관, 북큐레이션 운영

도서관 사서가 매월 주제별 직접 선정 도서 소개 한국 SF소설 작가 열전

대덕구 “해빙기 도로파임 보수·봄철 산불예방 철저” 당부

향대 간부회의 주재... “축대 붕괴 점검 등 안전관리 총력 추진” 당부

제16회 다문화가정 국제특급우편(EMS) 발송 행사 개최

대전대덕우체국·대덕구가족센터·수공

‘마을공동체활성화·주민 공모사업 통합설명회’ 개최

공동체활성화·주민참여예산제 등 안내...

“을사년 풍년과 안녕을”... 제26회 신탄진대보름 쥐불놀이축제 개최

전통민속행사 주민 참여 장미

“봉사로 이웃사랑 실천”... 석봉동, 빨래 봉사단 발대

한국타이어 후원·조성한 빨래봉사단 발대... 봉사를 통한 이웃사랑 실천 기대

2025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노후 공용시설 보수 지원·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 7개 사업 오는 28일까지 접수... 내달 서류 심사·현장 조사·심의 후 오는 4월 중 선정

취약계층 가스 자동잠금장치 보급 나선다

가스안전공사 대전광역본부와 협조... 취약계층 등 400세대에 타이머록 무상지원

발행인 대덕구청장
 편집인 기획홍보실장
 발행처 기획홍보실(TEL:608-6603 / FAX:608-3811)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홈페이지 www.daedeok.go.kr
 발행일 2025년 3월 5일(제242호)



대덕구 숙원사업 ‘대전조차장’ 철도지하화 선도 사업 최종 확정 ‘쾌거’

대전조차장 평촌동 인근 이전 후 기존 부지 ‘청년 친화형 산단’ 조성
동서 단절 극복·일자리 창출·첨단산업 유치 등 신성장 동력 확보 기대



대덕의 숙원(宿願)이자 대덕의 미래를 열어갈 대전조차장 이전 및 재개발 사업이 마침내 현실이 돼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2월 19일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 후보지로 대전, 경기 안산, 부산 등 3개 도시를 최종 확정, 발표했다.

대전조차장은 도시 팽창으로 인한 도심 내 동서 단절, 개발 제한 등으로 인근지역까지 슬럼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전 및 재개발 방안 등에 대해 꾸준한 논의가 진행됐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다 마침내 이번에 물꼬를 트게 됐다.

대전시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개발 제안서에 대전조차장을 대전철도차량정비단(대덕구 평촌동) 인근으로 이전한 후 기존 부지(대덕구 읍내동 426일원)를 개발, 선로를 입체화해 상부를 녹지 또는 도로로 활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즉, ‘상부 데크화’를 통해 신개념 공원 및 최첨단 도로, 미디어 콘텐츠와 빅테크(Big Tech)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이번 대전조차장 입체화 사업은 오는 2035년 완료를 목표로 1조 4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대덕구 동서 단절 문제 극복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청년 창업과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새로운 경제 거점 형성 등 대덕구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달의 책을 소개합니다”

대전 대덕구 석봉도서관, 북큐레이션 운영



도서관 사서가 매월 주제별 직접 선정 도서 소개
한국 SF소설 작가 열전·그림책 ‘쓰레기통 요정’ 원화 전시도 운영

석봉도서관이 책과 독자를 연결해 주는 ‘북큐레이션(Book curation)’ 서비스를 상시 운영한다.

‘북큐레이션’이란 특정 목적이나 주제에 따라 책을 선별해 추천해 주는 서비스를 뜻하며, 석봉도서관은 △성인·청소년 대상 △유아·아동 대상 △주제별 도서 △원화전시 △홈페이지 사서추천 도서 등 사서가 직접 선정한 도서를 월별로 소개할 예정이다.

도서관 관계자는 “책과 함께 따뜻하고 풍성한 한 해를 보내실 수 있도록 북 큐레이션 행사를 마련했다”라며 “도서관이 여러분의 독서 생활 가이드가 돼 독서 생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북큐레이션을 통해 소개된 도서들은 석봉도서관 자료실에서 만나 볼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대덕구 도서관 홈페이지(lib.daedeok.go.kr)를 참고하거나 석봉도서관(☎608-6283)으로 문의하면 된다.



취약계층 가스 자동잠금장치 보급 나선다



가스안전공사 대전광역본부와 맞손...
취약계층 등 400세대에 타이머록 무상지원

대덕구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광역본부(본부장 이종대)와 ‘대덕구 타이머록 보급사업 업무협약(MOU)’을 맺고 가스 안전사고 제로화에 나섰다.

이번 업무협약은 가스 취급 부주의로 인한 사고 예방 및 주민 안전 복지 확대를 위해 마련됐으며, 구와 가스안전공사 대전광역본부는 지역 내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등 400여 세대에 가스 안전장치인 ‘타이머록’을 무상 설치·보급에 나선다.

타이머록은 가스레인지 등의 연소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시간이 되면 가스공급을 자동 차단하는 장치로, 가스 사고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인정받고 있어 취약계층의 안전 복지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타이머록 지원사업이 가스 사고 예방 및 생활안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가스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덕구는 2023년 12월 오정동 가스 폭발 사고로 인한 주민 가스 안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소상인 LP가스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등 가스 안전사고를 예방·대응하기 위한 독창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을사년 풍년과 안녕을”...

제26회 신탄진대보름 쥐불놀이축제 성료

전통문화계승·주민 화합의장 마련... 달집태우기·전통 민속놀이 등 '다채'

대전 대덕구는 지난 2월 9일 을사년 정월대보름을 맞아 신탄진 현도교 금강변 일원에서 개최한 '제26회 신탄진 대보름 쥐불놀이 축제'를 성황리에 마쳤다.

신탄진대보름 쥐불놀이 추진위원회와 (사)대전사랑시민협의회 공동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했다.

특히, 올해로 26회를 맞이하는 이번 축제는 지역 주민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투호 던지기 △제기차기 △연날리기 등 전통 민속놀이를 체험하는 식전 행사로 막을 올렸으며, 이어 △지신밟기 △길놀이 △소원 고사 및 액막이 타령 △초청 가수 공연 등이 펼쳐졌다.

이후 본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초청가수 2부 공연 △소원 달집 태우기 △강강술래 국악공연 △불꽃놀이 등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변용기 신탄진대보름 쥐불놀이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소중한 전통문화를 지키기 위해 축제에 참여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앞으로도 신탄진 지역의 전통문화 행사의 명맥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쥐불놀이는 예로부터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고 농경사회에서 병해충을 예방하는 전통 풍습으로 대덕구는 전통의 가치를 보존하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26년째 신탄진 대보름 쥐불놀이 축제를 지원·운영해 오고 있다



'소각산불 예방'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지원



봄철 산불조심기간 전 선제 추진... 노끈 등 영농폐기물은 제외 오는 5월 15일까지 차량 진입 가능 장소에 부산물 정리 후 수거 신청

대덕구가 오는 5월 15일까지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구는 최근 5년간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농업부산물 소각을 막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 봄철(2~4월)에 산불이 집중되는 것을 고려해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되기 전 선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거 대상은 영농부산물(깻대, 고춧대 등)로 비닐, 노끈, 농약병 등 영농 폐기물은 제외된다.

신청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장소에 부산물을 정리해 둔 후 대덕구로 수거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영농부산물 수거 및 파쇄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 공원 녹지과(☎608-5163, 516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대덕구는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산불취약지역 인력 배치 △산불 캠페인 △드론 활용 감시 활동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그 결과 3년간 봄철 산불대책본부 운영기간동안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은 바 있다.



걸어서 대덕속으로

금강로하스해피로드

금강로하스해피로드는 지난 2009년 금강변에 조성한 수변 산책코스로 보행데크와 자전거길 및 각종 공원 등이 있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산책로다.

대청대교부터 금강로하스 대청공원까지 이어져 약 5.5km에 이르는 비교적 긴 산책로다. 데크길을 따라 걷다보면 다양한 식물의 향연이 펼쳐지고, 꽃향기가 나풀나풀 강바람에 실려 코끝에 닿는다.

특히, 금강이 선사하는 천혜의 경관에 잠시 발걸음을 멈춰 주위를 둘러보면 아기자기하게 피어난 꽃들이 무척이나 아름답다.

지난 2018년 설치한 음악전용 스피커에서 나오는 음악과 함께 고요한



금강의 경치를 감상하는 등 그야말로 전국 대표 산책로라 할수 있다.

<참고자료> 대덕 역사·문화 관광포털 및 대덕 관광안내도



2025 대덕물빛축제

오는 28일 개막



대청호에 방문하는 분들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2025 대덕 물빛축제'가 오는 28일 막을 올린다.

전국 대표 문화관광형 축제로 도약한 '대덕물빛축제'는 올해 '대청호, 고래는 바란다'라는 주제로 3월 28일부터 4월 26일까지 30일간 봄의 향기가 가득한 대청공원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올해의 물빛축제 주제는 '대청호, 고래는 바란다(Wish With Whale)'로 '대청호에 방문하는 모든 이들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 지기를 바란다'라는 뜻을 담았다.

구는 이번 2025 대덕물빛축제도 대청호의 낮과 밤을 모두 만끽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었다.

낮에는 핑크모래놀이 및 바람개비 만들기 체험, 고래 컬러링 체험 등 체험 프로그램과 '바람개비 광장'을 조성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콘텐츠를 확장했다. 뿐만 아니라 매주 주말 지역 예술인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구성했다.

밤에는 대청호의 '물'과 화려한 조명 '빛'이 아름다운 루미페스타를 운영한다.

이외에도 벚꽃&버스킹, 클래식&재즈 등 각 주 간별 프로그램과 로컬 상품관,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프리마켓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물빛축제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이자, 많은 관람객의 사랑을 받고 있는 '대덕뮤직페스티벌'은 내달 5~6일 양일간 진행된다. 이번 뮤직페스티벌도 인기 가수들이 대거 참여해 뜨거운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교통밀집 해소를 위해 뮤직페스티벌 기간 '대청공원-여수로삼거리-용정초네거리-현도교 하상 구간'을 통제할 계획이며, 비상여수로담 등 4개 권역에 2030여대 규모의 임시주차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한 축제 운영을 위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의료요원 및 구급차량을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화장실을 10개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벚꽃이 만개한 봄날, '2025 대덕물빛축제'가 열리는 대청호에서 가족, 연인, 친구들과 많은 추억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3.28 부미페스타 정동

4.5 개막식(개막행사, 불꽃쇼)

4.5 - 6 뮤직페스티벌

N.Flying 10cm 스티라왕 김꽃물

연예인 음악사 위아어나웃 날진

4.26 호콘서트, 벚막세(만남의 성지)

주요 프로그램

루미페스타

뮤직페스티벌

고래, 고래노래자랑

프린지 공연

어린이 놀이터

바람개비 광장

3.28

부터

4.26

대청공원 일원

2025 대덕물빛축제

대청호 고래는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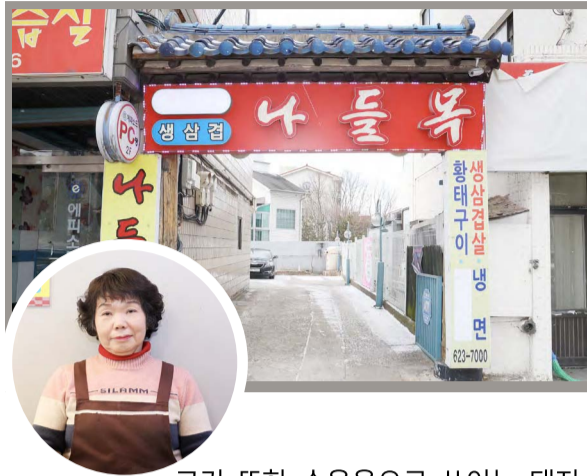


우리지역의 **맛집**을 찾아서



감칠맛 폭발하는 김치찌개 맛집 신대동 '나들목식당'

- 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211(신대동 216-8) / 042-623-7000
- 김치찌개·민물새우탕·황태탕 각 9000원, 동태찌개 1만원, 황태구이 정식 1만2000원, 황태전골(중) 2만8000원, 향정살(200g) 2만원, 돼지갈비주물럭(250g) 1만5000원
- 영업시간 : 10:00~22:00
- 정기 휴무일 : 매주 일요일



한국인의 소울푸드 중 하나인 김치찌개. 어렸을 적 어머니가 신김치와 돼지고기를 듬뿍 넣고 푹 끓여 주신 맛있는 김치찌개에 밥 한 공기면 배 속이 든든해지면서 힘이 솟아나곤 했다.

대전 대덕구 신대동에는 이런 아련한 향수(鄉愁)를 자극하는 김치찌개 노포(老舖)가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정문 맞은편에 있는 나들목식당(대표 최정권·김영숙 부부)이다.

2000년대 초반 현재의 자리에 터를 잡고 22년째 운영 중인 나들목식당은 안주인인 김영숙씨의 타고난 손맛 덕에 동태찌개, 민물새우탕, 황태(구이·탕·전골)요리, 돼지 삼겹살 등 취급하는 메뉴 모두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그중 백미(白眉)는 김치찌개라 할 수 있다.

김치찌개는 충분히 발효 숙성된 신김치가 맛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이 집은 김치찌개에 최적화된 숙성 김치를 생산·납품하는 고정 거래업체를 통해 공급받고 있다.

고기 또한 수육용으로 쓰이는 돼지의 앞다리 아랫부분인 사태를 주로 사용해 쫄깃한 식감과 풍부한 맛을 더해주고 있다. 여기에 정성을 다해 우려낸 육수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점심 시간에는 김치찌개를 먹고자 하는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특히, 이 집의 김치찌개는 김치, 고기, 두부 등을 듬뿍 넣어 3인분 같은 2인분을 내주시는 것은 물론 얼큰하고 시원해 술안주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반찬 또한 직접 구운 김, 오징어채볶음, 생미역, 계란말이, 겉절이, 시금치·당근 무침, 샐러드 등 직접 만든 8가지 반찬으로 손님들의 한 끼 식사를 든든하게 채워주고 있다.

나들목식당은 비단 김치찌개뿐만 아니라 황태요리는 물론 저녁에는 향정살 등 돼지고기를 드시는 손님들로 분야성을 이룬다. 최고급 한돈만을 공급받는 데다 최정권 대표가 직접 정성스럽게 고기를 손질하니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다.

최정권·김영숙 부부는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맛있는 음식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20여년 넘게 운영해 왔습니다. 외지로 이사 가신 분들이 일부러 찾아오시는 등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주시는 손님들이 고마울 따름이지요”라고 말했다.

이들 부부는 오전 8시가 되기 전에 가게로 출근한다. 매일 손님상에 내놓을 찌개와 반찬 하나까지도 일일이 챙긴다. 매주 화·금요일에는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에 가서 직접 장을 본다. 20여 년 넘게 호흡을 맞춰 온 터라 자신들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미덥지가 않다고.

행정안전부 주관 착한가격업소에 선정된 것은 물론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주관 ‘디딤돌 프로젝트’ 참여 등으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나들목식당 최정권·김영숙 부부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집밥의 정성’을 손님들에게 제공한다는 마음으로 건강이 허락되는 한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엄마표 밥상으로 든든한 한 끼를 읍내동 '모락모락밥상'

- 대전 대덕구 아리랑로113번길 44-15(읍내동 483-77) / 042-624-6413
- 제육볶음·돼지불백 각 1만원, 김치찌개·우삼겹된장찌개·순두부찌개 각 8000원, 삼겹살(150g) 1만2000원, 닭볶음탕·닭백숙(예약) 각 5만원
- 영업시간 : 11:00~22:00
- 정기휴무일 : 매주 일요일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밥과 정성 맛있는 반찬이 가득한 백반은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편안 한 한 끼가 아닐까.

대덕구 회덕동행정복지센터 맞은편 주택가에 자리 잡은 모락모락밥상(대표 고준순)에 가면 맛있고 든든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다.

이곳의 위치가 워낙 구석진 골목에 있다 보니 허름한 외관의 작은 밥집일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고정관념은 식당 입구에서 이내 깨지고 만다.

간결하면서도 포인트 있는 간판과 함께 통창을 설치해 카페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내부 또한 밝고 정돈된 느낌의 인테리어와 넓은 테이블 간격, 오픈형 주방 등으로 여유롭고 편안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꾸며졌다.

모락모락밥상은 약 2년 전에 개업한 새내기 식당이다. 현재의 자리에서 다른 상호로 10여 년간 운영하고 있던 식당을 고준순 대표가 인수해 새 단장과 함께 ‘모락모락밥상’이라는 상호로 새롭게 출발한 것이다.

사실, 음식점 운영 경력이 전무(全無)한 것은 물론 50대 중후반에 접어든 고 대표가 음식 장사에 뛰어들게

된 데는 남다른 사연이 있다. 가정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뜻하지 않은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청천벽력 같은 위기에 약 1년간 깊은 절망감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고준순 대표는 큰딸과 작은딸의 조언과 격려 그리고 엄마와 함께 고된 식당 일에 참여해 준 큰딸의 희생으로 마침내 모락모락밥상을 개업하고 손님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는 음식점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

모락모락밥상은 점심에는 제육볶음·돼지불백, 김치찌개를 판매하고 있으며, 저녁에는 삼겹살과 닭볶음탕·닭백숙 등 비교적 단출한 메뉴로 구성했다.

준비할 때 딸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엄마가 만들어주는 제육볶음, 돼지불백, 김치찌개 모두 정말 맛있었다. 그 정도면 손님들에게도 충분히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용기를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만들 수 있는 메뉴들로만 구성했습니다’라며 환하게 웃었다.

이 집의 제육볶음은 비계가 적당히 섞여 있는 고기에 감칠맛 나는 양념이 고루 배면서 살짝 매콤하면서도

부드럽게 씹히는 맛이 최고이다. 양념한 돼지고기를 불에 구운 ‘돼지불백’ 역시 달고 짭조롬한 양념과 쫄깃쫄깃한 고기가 환상적인 궁합을 이루면서 갓 지은 밥을 함께 먹으면 밥도둑이 따로 없을 정도로 깊은 맛을 낸다.

특히, 이 집은 제육볶음·돼지불백을 드시는 손님들에게 미역국을 제공하는데 그 맛이 일품이다. 반찬 또한 버섯볶음, 감자채볶음, 무생채, 콩나물무침, 김치 등 매일매일 다른 밑반찬을 새롭게 선보이며 손님들의 식욕을 한껏 돋우고 있다.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태어나 결혼하면서 이곳 읍내동에 터를 잡고 30년 넘게 살고 있다는 조준순 대표는 “비록 작은 마을이지만 넉넉한 인심과 푸근함이 좋아 떠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인근 대전산업단지 근로자들이 점심시간 많이 찾아주시는 등 식당 운영도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어 힘과 열정이 생깁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 가족에게 밥상을 차려준다는 만능마음으로 정성을 다한 음식으로 변함없이 손님들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대덕구기관장협의회 양수조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양 수 조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미국의 작가 겸 사회 사업가인 헬렌 켈러는 “교육은 삶의 전진방향”이라고 정의했다. 즉, 교육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지난 1989년 개청한 대전동부교육청은 대전시교육청 산하기관으로 총 4만 5500여 명의 학생과 약 4300명의 교직원에게 만족도 높은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에 대덕라이프 편집자는 양수조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만나 ‘모두가 행복한 명품 동부교육’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과 대덕에 대한 개인적 소회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① 대전동부교육지원청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지향하는 교육의 기본방향은?

교육지원국과 행정지원국의 2국 6과 2센터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동부교육’을 비전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융합교육 △배움과 성장이 있는 혁신교육 등 총 5개 정책 방향으로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세계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두의 배움을 지원하는 기초학력 책임교육 △미래다움·인간다움을 키우는 교육과정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는 학교예술교육을 중점 추진해 경쟁력 있는 대전동부교육을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① 지난해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이 추진한 핵심 교육정책과 성과를 간략히 소개한다면?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지난 2024년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책임교육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는 학교예술교육 등을 핵심정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모두에게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책임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두드림학교와 책임교육학년제 운영 등 기초학력 보장 지원사업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인 교육부 지정 ‘학생맞춤 통합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했습니다.

또, 미래 역량을 키우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유·초등학교에서는 ‘별별학교 행복이야기’를, 중학교에서는 ‘신나는 동행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교육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인성과 감성을 키우기 위해 어울림 동요 부르기 대회, 민속놀이 대회, 빅밴드 뮤직 페스티벌 등을 개최하는 한편 동부교육장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에는 156팀이 참여해 건강한 몸과 바른 마음을 바탕으로 신체 능력 향상에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러한 정책과 성과를 통해 앞으로도 모든 교육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명품 동부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① 2024년 9월 취임 이후 어느덧 6개월이 지났다. 동부교육 발전을 위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모두가 행복한 명품 동부교육’을 만들기 위해 우선 학생들의 학력 향상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기초학력 책임교육, 늘봄학교 지역 연계 강화,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 교육지원청 운영 등을 통해 교육 기회에 있어 모든 학생이 소외됨이 없도록 ‘학생맞춤형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특히, 소규모 학교의 특색을 살린 교육활동 운영을 위해 예산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소규모 학교 간, 지역 사회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교육자원 공유와 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이밖에 낙후된 교실, 체육관, 화장실 등 학교 현안을 파악하고, 예산 및 시설개선을 지원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① 오랜 기간 교육현장에 계셨는데 그간 느끼신 어려움이 있다면? 느끼신 바를 통해 직원들에게 만들어주거나 배려하고 싶은 근무 여건이 있다면?

교육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학생들의 생활지도 및 학교폭력 관련 사안입니다. 두 가지 모두 예방이 최선의 해결 방법인 만큼 우선 학생들의 생활지도 예방 교육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 교사를 대상으로 심리적 접근, 갈등 해결, 학교폭력 예방 등 생활지도 관련 전문 연수를 제공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학부모들의 관심과 생활지도가 매우 중요한 만큼 가정에서 실천 가능한 생활지도 방법과 학생 이해를 돕는 교육 등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① 지역사회를 위해 기부 및 봉사 등 사회적 공헌 활동 대표적 사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매년 설, 추석 명절을 맞아 사회복지기관을 방문하는 등 꾸준한 이웃사랑과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인근 부대를 찾아 위문금을 전달하며 국군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국적인 릴레이 캠페인에도 동참해 청소년들이 건전한 생활 습관을 기르고 도박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① 대덕구와 인연을 소개해 주신다면?

1992년 9월 고향 울산을 떠나났선 대전에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교과서에서만 보던 KT&G가 신탄진에 있다는 사실이 놀라워 신탄진이 어떤 곳인지 궁금했고, 그래도 이왕 가는 김에 신탄진 5일장이 열리는 날에 맞춰 가봤습니다.

장터에서 딸아이를 위한 예쁜 머리핀과 참빗을 사서 선물해 줬는데, 딸아이가 오랫동안 간직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지금도 가끔 신탄진장에 들러 과거의 추억과 함께 시장 특유의 정겨운 분위기를 즐기며 물건들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① 끝으로 대덕구민 및 동부교육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과 당부사항이 있다면?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상징하는 2025년 푸른 뱀의해를 맞아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 동부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생들은 꿈과 끼를 펼쳐 배움이 일어나고, 교사는 가르치는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명품 동부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덕구민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할 것”

전석광 의장 “활발한 의정활동 위한 지원 아끼지 않겠다”

전석광 대덕구의회 의장이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포부와 함께 제9대 의회 후반기 의정활동 방향 등을 밝혔습니다. 전 의장은 동료 의원들의 활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나서겠다고 강조하는 한편, 공직자까지 포함해 모든 구성원들이 성심성의를 다해 구민을 섬기겠다고 역설했습니다. 특히 대덕구의회를 대표해 구민들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데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의장과의 신년인터뷰 일문일답을 소개합니다. <편집자주>



Q. 제9대 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2025년을 맞았다. 소회를 말하자면.

올해 우리 의회는 새해 사자성어로 ‘동심공제(同心共濟)’를 선정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해서 함께 건너간다’란 뜻입니다. 이는 새해에 구민과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희망찬 미래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반영한 것입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에도 희망 대덕구를 위해 동료 의원과 의회 공직자 모두 성심성의를 다해 구민을 섬기겠습니다. 구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구민의 마음을 더 헤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 의장으로서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나 계획은 무엇인지.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9대 대덕구의회는 전반기와 후반기 모두 시작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니다. 구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성실함과 진실함이 담긴 의정활동을 벌여 과오를 씻어 내는 한편, 제9대 의원들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솔선수범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의원 모두 구민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인정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나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남은 임기 대덕구를 위해 더 많은 봉사과 헌신을 통해 구민에게 받을 사랑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올해 의정활동 방향이 있다면.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 간 화합과 협치를 도모할 것입니다. 소속된 정당이 다르고 추구하는 정치 철학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의원 모두는 대덕구민들이 뽑아주신 대덕구의원입니다. 소속감과 사명감을 명분 삼아 대화의 장을 만들 것입니다. 어느 한쪽 편을 들어주거나 대변하는 게 아닌, 조정과 타협을 제안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대화의 목표와 결과가 늘 구민을 향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그럼에도 의견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협치에 따른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중재하겠습니다.

Q.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어떻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대화동 일원 대전산업단지에 대한 도시재생 사업을 들 수 있습니다. ‘대전의 엔진’이라 불리며, 대전경제산업의 중추 역할을 했었지만, 현재는 노후화된 대표적인 굴뚝산단으로 가치와 의미가 바래진 상태입니다. 조성 50여 년이 지나 시설 노후화에 따른 산업 생산성 하락과 청년 인구 유출 등 부정적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대덕구뿐 아니라 대전으로서도 아픈 손가락이 된 셈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대전산단이 첨단산업단지로서 대개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계획입니다. 가장 우선시 돼야 할 것은 대전산단 종사자와 거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우려와 개선될 정주여건에 대한 기대와 방향 등이 요구 사항에 담길 수 있습니다. 이를 여과 없이 분명한 방향과 크기로 중앙 정치권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전달해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대전산단뿐 아니라 인접지의 도시재생을 위해서도 좀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대덕구를 일하기 좋은 곳인 동시에 살기 좋은 곳으로서 더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구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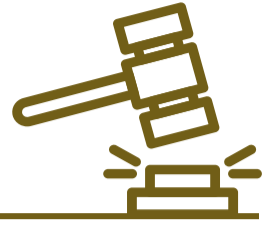
지난해 하신 일 모두 잘 마무리하셨길 바랍니다. 올해에는 더 나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대덕구의회 의원을 비롯한 구성원 전원은 구민들에게 더 빛나는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마음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가정에 평화와 안녕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전석광 의장은

충북 청원 출신으로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더불어 민주당 대덕구지역위원회 사무국장 및 자치분권위원장을 맡은 데 이어 박영순국회의원 대외협력특보를 지냈다. 제9대 대덕구의회 전반기 경제도시위원장에 이어 후반기 의장을 역임하고 있다.

대덕구의회, 3월 임시회서 첫 추경 처리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 등 담겨



대덕구의회는 3월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제285회 임시회를 열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한다.

구의회는 특히 올해 첫 추경에 대해 당위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심사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에는 지역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을 비롯해 추경 예산 성립 전 사전 사용분이 담겨 있다.

이준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경기침체 장기화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이 편성된 만큼, 신속 처리를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경제와 복지 등에 관한 의원별 5분발언을 비롯해 대덕구청 신청사 부지와 오정근린공원 등에서 사업점검을 위한 현장방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의원발의 조례안 16건 등 30여 개 일반안건을 살핀다.

전석광 의장은 “구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집행기관과 협조할 사항에 대해선 적극 손을 잡을 것”이라면서도 “아쉬운 정책이나 미진한 사업에 대한 지적과 대안 제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기고

보행자 권리 지키는 한걸음



유승연 의원

1904년 신탄진에는 경부선 철도가 완성되면서 동서를 연결하는 굴다리가 생겼다. 바로 ‘신탄진 굴다리’이다. 이 굴다리(이하 지하차도)는 몇 년 전만 해도 끝을 알 수 없는 터널처럼 음산하고 불안한 느낌을 주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이 섣뚝 발을 내딛기 어려운 공간이었다. 그러나 2020년 대전시의 셉테드(CPTED·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을

통해 CCTV, 안심벨, 경관 조명이 설치되면서 신탄진 지하차도는 ‘굴다리 갤러리’라는 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꾸며졌다. 이후 주민들은 전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하차도 보행로를 이용하고 있다. 지하차도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새롭게 조성된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덕구의 모든 지하차도 보행로가 신탄진 지하차도와 사정이 같지는 않다. 비래 지하차도, 오정 지하차도, 덕암동 경부고속도로 하부 보행로 등은 여전히 열악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가이드라인(2022)’에는 지하차도 보행로의 벽면과 천장은 밝은색으로 도색하고, 음영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광량을 확보하며, CCTV와 비상벨 등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래 지하차도는 기본적인 도색조차 돼 있지 않으며, 낮에도 그림자가 지고 최소한의 안전시설물도 부족한 실정이다. 열악한 보행환경은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키울뿐 아니라, 주민들의 불안감도 함께 커지게 할 수 있다.



[셉테드(CPTED·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이 시행된 신탄진굴다리(왼쪽) 모습과 경관조명 등이 설치되지 않은 비래지하차도(오른쪽) 모습.]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핵심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다. 비래 지하차도를 포함해 관내 모든 지하차도를 대상으로 벽면 도색, 안전시설물 확충, 경관조명 설치 등 구체적인 개선안이 제시돼야 한다. 또한 새로 만들어질 지하차도의 경우 설계 단계부터 보행자를 위한 환경을 고려해 조성돼야 할 것이다.

보행권은 ‘보행안전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권리이기도 하다. 지하차도 보행로가 주민들의 안전과 더불어 문화·예술을 위한 공간으로 개선된다면, 이는 단순한 환경개선을 넘어 모두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중요한 한걸음이다. 필자 또한 주민 기본권이 바로 서는 대덕구 조성을 위해 그 걸음에 동참할 것이다.

30년 미용 봉사 외길 김중운 비래동 박수아 헤어카페 원장

자격증 취득 후 봉사 나서... 장애인복지시설 방문 미용 봉사 20년 이어가
삶의 터전 비래동서 이웃사랑 실천 “마음부터 다가가서 유대감 형성해야”
사람 마음을 만지는 이·미용 봉사 펼치고자 사회복지학 공부... 졸업 눈앞
“봉사 통해 무한한 성취감과 행복감 얻어... 멈추지 않고 봉사 이어갈 것”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오롯이 한 길만을 걷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 자신이 걷는 길의 기술을 활용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어려운 이웃들에게 꾸준한 배움을 실천하는 것은 더욱이 어려운 일이다.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서 '박수아 헤어카페'를 운영하는 김중운(60·여) 원장은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꾸준한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우선 그녀가 가위와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 계기가 어찌하면 평범하면서도 남달랐다. 이·미용 재료 납품사업을 하는 남편과 백년해로(百年偕老)를 맺으면서 자연스럽게 미용 기술에 관심을 두게 됐다는 것이다.

이후 김중운 원장은 1990년대 후반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곧바로 대전 서구 지역에서 작은 미용실을 개업함과 동시에 대전미용봉사단 소속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인 방문 미용 봉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특히, 그녀는 매월 1회씩 진행되는 미용 봉사에 무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나섰다고 한다.

김중운 원장은 “누구나 멋있어지고 예뻐지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지요. 머리를 자르기 위해 시간 맞춰 오시고 어눌한 발음이지만 감사를 표현하며 밝게 나가시는 모습을 보는 게 제 기쁨입니다. 미용실에서 손님을 대할 때와는 조금 다른 감정이 느껴지곤 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20여 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장애인복지시설 미용 봉사를 펼쳐온 김 원장은 7년 전부터 자신의 거주지이자 미용실이 있는 비래동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비래동을 자신의 '제2의 고향'이라 부를 만큼 남다른 애향심(愛鄉心)을 갖고 있는 김 원장은 매월 지역의 시각 및 지체장애인, 홀몸 어르신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집을 일일이 방문해 머리를 손질해 드리고 있다. 또, 최근에는 지역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을 매월 1회 방문해 이·미용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김 원장은 비단 이·미용 봉사뿐만 아니라 △거리 환경지킴이 △홀몸 어르신 등을 위한 사랑의 밑반찬 봉사 및 청소 봉사 등 굵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지역사회 곳곳을 찾아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김 원장처럼 보통 미용인들의 봉사활동은 한두 번 간 곳이 아닌 십수 년째 같은 곳을 방문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서로가 끈끈하게 정으로

이어져 있고, 오랫동안 보지 않으면 서운한 관계가 돼 있다. 따라서 미용인들도 봉사활동에 가서 어르신들을 보면 내 부모가 생각나 정말 부모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에 임한다고 한다. 김 원장은 “길고 지저분하던 머리카락이 미용인들의 손길에 의해 아름답고 멋지게 변신하게 될 기대감도 있겠지만, 미용인들을 만나는 그 시간만큼은 근심, 걱정, 외로움에서 벗어나 가족들을 만나는 마음과 같지 않을까요”라며 “정을 나누며 서로를 살뜰히 챙겨주는 깊은 유대 관계 형성에서 봉사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특히 “봉사도 건강할 때 할 수 있으며, 봉사를 통해 삶의 활력이 넘친다면 그것이 바로 지상 최고의 건강관리 비법”이라며 적극 응원해 준 남편과 자녀들 덕분에 오랜 세월 미용 봉사를 이어올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김중운 원장의 봉사에 대한 열정은 '멈춤'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미용실 운영과 봉사로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도 틈틈이 학업을 진행해 마침내 올해 방송통신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할 예정이다. 그동안 봉사 현장에서 경험으로 배운 상담기법에 학문적 지식을 더해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도 어루만지는 이·미용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게 그녀의 소박한 목표이다.

김중운 원장은 “자원봉사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행동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무한한 성취감과 행복감을 가져다주지요”라며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되는 한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새 힘이 되도록 하는 봉사를 끊임없이 꾸준히 이어가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2025 아동청소년위원회 참여자 모집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참여 활동에 함께할 위원을 모집합니다.

주요일정

- 3~4월 OT 및 발대식
- 4월 외부 친목활동
- 5~10월 아동권리 옹호활동
- 11월 수료식

모집 대상

아동권리증진활동에 관심있는 9세~18세(초4~고3) 아동 및 청소년

주요활동

아동참여 활동의 기회

- 지역사회 조사 및 모니터링
- 정책제안 대회 참석
- 의무이행자 대상 간담회 등

모집 일자

2025년 3월 14일(금)까지

활동혜택

- 아동청소년위원회 위촉장 수여
-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 활동
- 월별 활동에 따른 봉사활동 시간
- 참여 위원들과의 즐거운 체험활동

신청접수



QR코드 접속



아동청소년위원회
조용이 위원

문의사항 : 초록우산 대전종합사회복지관 042-627-2957

대덕구 평생학습관 대관 운영 안내

대관기간 2025. 2. 3.(월) ~ 12. 31.(수)

대관장소 대덕구 평생학습관(대덕대로 1579, 석봉복합문화센터 3층)

신청대상 대전지역 시민, 기관, 학교, 단체 등

신청방법 대덕구 평생학습 홈페이지 - 신청서 온라인 접수

대관안내	다목적홀	음악연습실	동아리실
대관시간	금 09:00~12:00 13:00~18:00	월~금 09:00~12:00 13:00~18:00	월 09:00~12:00 13:00~18:00 화 09:00~12:00
사용료 (2시간 기준)	40,000	10,000	10,000
부대시설	빔프로젝트, 무대조명, 음향장비 등	전자드럼, 키보드, 앰프 등	전자칠판, 책상, 의자

○ 자세한 내용은 대덕구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 홈페이지 주소 : <https://lll.daedeok.go.kr/>(대덕구 평생학습-평생학습관-시설대관)

오시는길





청소년자원봉사학교

모집대상 자원봉사활동을 원하는 청소년 (회차별 25명)

활동내용 탄소중립 및 사회문제 캠페인 활동

3.29.(토) 환경교육 및 고체삼푸 만들기	방학 프로그램	마약 및 도박 예방 캠페인 피켓 제작
4.19.(토) 새활용 병뚜껑 키링 만들기		마약 및 도박 예방 거리 캠페인
6.28.(토) (비건)수제빵 만들기 및 나눔		평가 및 수료식

신청방법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신청

심리상담을 통해 마음의 부담을 덜어보세요!
전문 심리상담서비스 **최대 64만원 지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2025. 1. 1. ~ 2025. 12. 31.

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 있는 지역주민 (의뢰서, 소견서 등 증빙서류 필요)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지원대상 제외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 정신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달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내용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제공 (1회당 1급유형 8만원/2급유형 7만원) 1:1 대면으로 1회당 최소 50분 이상 제공

제공기관 주소지 관계없이 제공기관 선택 가능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http://www.socialservice.or.kr>)

문의 대덕구 보건소 마음건강팀 ☎042-6088-5444

2025 청년봉사단 4기


모집기간
2025.2.17. ~ 3.21.

신청방법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메일 제출

메일주소
daeduk2014@hanmail.net

월별 활동 내용

- 4월 - 발대식 및 오리엔테이션
- 5월 - 장애인 및 어르신과 함께 산책 봉사활동
- 6월 - 장마철 대비 빗물받이 청소 봉사활동
- 7월 - 4조 4색 직접 기획하는 봉사활동
- 9월 - 청소년과 함께하는 관문통과 줍깅
- 10월 - 연탄나눔 봉사활동
- 11월 - 해단식 및 표창·수료증 수여



문의사항 : 042.636.0642.

65세 이상 폐렴구균 예방접종 무료 지원

‘폐렴구균 감염 예방’을 위해 꼭 접종받으세요!

- 접종대상** 65세 이상 어르신 **(1960년 이전 출생자)**
- 지원내용** 폐렴구균 23가 다당 백신 / 1회 접종
 ✔ 과거 65세 이상에서 접종한 경우, 더 이상 접종이 필요 없습니다.
- 접종기관** 대덕구 지정의료기관 62개소 및 전국 지정의료기관
 ✔ 예방접종도우미 <http://nip.kdca.go.kr/> 에서 확인가능
- 문의전화** 대덕구보건소 ☎ 042-608-5482, 5487



2025년 자동차세 연납하고 세액공제 혜택 받으세요!

3월 연납 시 공제액

공제율	5%
공제 기간	4월 ~ 12월(9개월)

예시) 자동차세 연세액 200,000원(본세기준)인 경우
 - 3월 중 연납하면 200,000원 × 275/365 × 5% = **약 7,530원 공제**

신청방법

- ☑ 위택스(www.wetax.go.kr) 및 스마트위택스 신청 및 납부
- ☑ 전화신청 (☎042-608-6248) 또는 방문신청

연납 후 양도 시 미경과 기간 세액 환급

- ☑ 소유권 이전 등록 시 이전일 이후의 세액을 일할계산 환급
- ☑ 폐차·말소 시 폐차·말소일 이후의 세액을 일할계산 환급

6월, 9월에도 연납신청 가능

신고납부시기	1. 16 ~ 1. 31	3. 16 ~ 3. 31	6. 16 ~ 6. 30	9. 16 ~ 9. 30
공 제 액	연세액의 4.5%	연세액의 3.7%	연세액의 2.5%	연세액의 1.25%

신청전화

대덕구 세원관리과 ☎ 042-608-6248



대청문화전시관 목재 체험 수강생 모집

- 내 용 : 생활목재(도마, 의자, 트레이, 시계, 기타등)
- 일정 및 시간 : 2025년 4~9월(7개월)
매주 화·목·금요일 (오후 2시)
- 대 상 : 선착순 대덕구 거주 성인(남·여) 5명
- 장 소 : 대청문화전시관 목재 체험관
- 신청 및 신청 시간 : 전화 접수(☎010-5454-7028)
오전 9시~18시
- 수강료 : 무료 / 재료비 : 추후 공지

문 의 : 대덕구 공원녹지과 대청문화전시관(☎042-932-0311)



2025 백세계 독서하기

책 정원(도서관)에서 독서와 문화로 일상 속 푸른 심표를 만드는 대덕구 대표 독서문화행사 '2025 백세계 독서하기' 행사에 참여해보세요.



- 주 제 : The Book Garden
- 장 소 : 석봉도서관 외 (대덕대로 1579, 석봉복합문화센터 2층)
- 운영 기간 : 4월 20일 낮 12시~오후 6시
- 대 상 : 가족, 친구 등 50팀 (대덕구민 최소 1명 포함)
- 프로그램 : 힐링독서, 입체낭독극, 책놀이, 창의놀이, 공연
- 수 강 료 : 팀당 3만원
- 접수기간 및 방법 : 3.17.(월) ~ 4.13.(일)
QR코드 접속

문의 : 대덕구 석봉도서관(☎042-608-6282)



대청문화전시관 도자기체험 수강생 공고

- 기간 및 시간 : 2025년 4월 6월 (3개월)
매주 화,목요일 오전 10시~12시
- 대 상 : 대덕구 거주자 - 성인 (남 · 여) 25명 (선착순)
- 장 소 : 대청문화전시관 3층 체험실
- 신 청 : 전화접수(☎042-932-0311, 010-3473-2026)
* 전화 연결이 안 될 경우 핸드폰으로 신청 문자 남겨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 수강료 및 재료비 : 무료 / 월 10,000원 (2kg, 무료 가마 소성)

문 의 : 대덕구 공원녹지과 대청문화전시관(☎042-932-0311)



2025년 대덕구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신청기간 2025. 4. 1.(화)~ 4. 7.(월) / 2차접수(정원미달시) 4. 17.(목)~ 4. 21.(월)
- 대 상 대덕구민 우선 접수
- 신청방법 대덕구 평생학습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평생학습관 → 프로그램신청
 ※ 교육장원의 50%이상 모집시 개설 (인터넷신청방식)
- 납부기간 (감면/면제 증빙서류 제출): 2025. 4. 10.(목)~ 4. 14.(월)
- 운영강좌 세계사(만들기반) 외 25개(총26개)
- 장 소 대덕구 평생학습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 1579(석봉동), 3층]
- 문의전화 ☎ 042-608-6494
- 운영학과과정



* 운영일시와 장소는 기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재료비/교재비는 신청접수시 공지